



땀띠약

요약

땀띠약은 과도한 땀이나 자극으로 인해 발생한 피부의 작은 수포성 발진인 땀띠를 치료하는 약을 말한다.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국소마취제, 항염제 등이 함유된 복합제가 주로 사용된다. 함유 성분 중 피부를 화끈거리게 해서 가려움을 감소시키는 DL-캄파가 함유된 제품은 30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외국어 표기

drug for miliaria(영어), drug for sudamina(영어)

동의어: agent for miliaria, agent for sudamina, drug for heat rash, drug for prickly heat, 땀띠 연고, 땀띠 크림

땀띠

땀띠는 땀이 배출되는 통로인 땀관이나 땀관 구멍이 막히면서 땀이 만들어지는 땀샘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땀관이나 땀관 구멍이 막히는 원인으로는 습열, 자외선, 반창고 등에 의한 자극이나 비누의 과다사용, 세균감염 등의 외적인 요인과 많은 양의 땀, 피지 생성 감소 등의 내적인 요인이 있다. 아기들은 어른에 비해 땀샘의 밀도가 높고 표면적당 발한량(땀배출량)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땀띠가 잘 생긴다. 증상으로는 피부에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수포가 생기며, 가려울 수 있으며 따끔거리는 경우도 있다. 주로 얼굴, 목, 가슴, 겨드랑이에 발생한다.

땀띠약은 가려움, 염증반응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사용한다. 가려움증과 염증반응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히스

타민제*에 국소마취제, 피부염 치료제, 발적제(혈관을 팽창시켜 피부를 붉게 만드는 성분) 등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를 사용한다.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약한 부신피질호르몬제† 외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 성분의 단일제를 사용할 경우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

*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 발적, 소양감 등의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알레르기성 질환 외에도 콧물, 재채기, 불면, 어지러움증, 구토, 멀미 등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

† 부신피질호르몬제: 부신피질호르몬제는 흔히 스테로이드제로도 불리며, 항염증 작용과 면역억제 작용이 있는 약물이다. 광범위한 약리 작용에 의해 알레르기성 질환, 내분비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치료에 사용된다.

종류

땀띠약에는 항히스타민제, 국소마취제, 자극성 피부염 치료제, 피부 발적제, 청량제, 상처, 궤양 치료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이 복합되어 있다. 가려움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각 약물 성분군들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항히스타민제

국소 부위에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여 가려움증,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므로 땀띠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베틀리®, 물린디® 등 일반적으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에도 주성분으로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어 땀띠약으로도 사용된다.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등의 성분이 사용되고, 아래의 기타 가려움증, 염증을 진정하는 약물들과 복합제로 많이 사용된다.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외용제를 생후 1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국소마취제

신경 자극의 발생과 전도를 억제함으로써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므로 항히스타민제의 보조 목적으로 복합제에 사용된다. 디부카인, 리도카인 등이 사용된다.

자극성 피부염 치료제

자극 완화, 항염, 진통 작용을 나타낸다. 감초에서 추출된 에녹솔론(글리시레틴산), 글리시리진산 등이 사용된다.

피부 발적제

피부를 화끈거리게 해서 가려움증을 감소시킨다. 살리실산메틸, 살리실산글리콜, DL-캄파 등이 사용된다. 살리실산메틸, 살리실산글리콜은 피부에 흡수되면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 매개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COX 효소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도 나타낸다. DL-캄파는 30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약물이 포함된 제품은 30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청량제

피부를 시원하게 하여 가려움증을 감소시킨다. 주로 L-멘톨이 사용된다.

상처, 궤양 치료제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킨다. 텍스판테놀이 주로 사용되는데 피부에서 판토텐산으로 전환되어 작용을 나타낸다. 소아용 크림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로도 불리며, 화학적인 염증 매개물질을 억제하여 염증을 완화시키고, 림프계의 활성화와 용량을 감소시켜 면역계를 조절해 염증반응을 억제한다. 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 등이 사용된다. 리도맥스®, 하티손® 등의 부신피질호르몬제 성분 단독 제품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살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기타 땀띠약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칼라민은 소량의 산화철을 포함한 산화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며 피부 수렴, 보호 작용이 있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땀띠약은 액제, 크림, 겔제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함유된 약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에 차이가 있다. DL-캄파가 함유된 복합제는 30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DL-캄파가 함유되지 않은 소아용 항히스타민제 복합제 크림은 1개월 이상 소아에게서 사용할 수 있다.

Table 1. 땀띠약의 종류와 제품 예

분류	성분	제품 예
부신피질호르몬제	프레드니솔론	리도맥스®, 보송®
	히드로코르티손	하티손®

복합제 (항히스타민제 + 부신피질호르몬제)	디펜히드라민+히드로코르티손+산화아연	더마큐®
복합제 (항히스타민제 + 기타 항염제)	디펜히드라민+텍스판테놀+글리시리진산+토코페롤	버물리키드®
	디펜히드라민+디부카인+에녹솔론+L-멘톨+DL-감파	리카에이®, 버래물®
기타 항염제	산화철+산화아연	칼라민®

효능·효과

땀띠 증상을 개선시킨다. 종류에 따라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법

1일 1회~수회 질환 부위에 적당량을 바른다.

금기

- DL-감파는 소아에게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DL-감파를 함유하고 있는 복합제는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소아용 항히스타민제 함유 복합제 크림을 생후 1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눈 주위,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물로 씻는다. 습진, 상처 부위,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벗겨진 피부 표면 또는 물집이 있는 부위에 다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함유된 제제는 환부가 광범위한 경우, 수두, 무좀, 백선*, 화농(고름)이 있는 부위에

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백선: 백선균(*Trichophyton*(*T. rubrum*, *T. mentagrophytes*, *T. verrucosum*, *T. violaceum*)), 소포자균(*Microsporum canis*) 및 표피균(*Epidermophyton floccosum*)과 같은 피부사상균에 의해 피부각질, 손발톱, 털 등에 일어나는 피부질환으로 진균 감염의 일종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의사항

- 땀띠약을 사용한 후 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5~6일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다른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이 나타난 적이 있는 사람, 습윤이나 짓무름, 염증이 심한 사람,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소아용 항히스타민제 복합제 크림을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 아기의 경우 땀띠가 난 경우에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바르면 오히려 땀관 구멍을 막아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접히는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 세균 증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위를 잘 고려하여 바르도록 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베이비파우더: 과거 탈크(talc, talcum) 라는 마그네슘이 주 성분인 천연 활석이 주성분인 제품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활석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에 혼입되어 안정성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옥수수 전분, 쌀 전분 등으로 탈크를 대체한 제품도 출시되어 사용 중이다.

부작용

땀띠약 사용 시 발진, 발적, 가려움,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 청소년 사용

-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사용한다.
- DL-캄파는 소아에게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DL-캄파를 함유한 복합제는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